



◀무량 자비심으로 사바세계를 바라보는 부석사.

'죄지은 자' 감쌀때 세상 바로서

감성으로 보는 권

<끝>사바를 안은 극락-부석사

사 람마다 다 별명이 있게 마련이지만, 나는 별로 별명이 붙지 않는 사람이었다. 별명이 붙는 사람은 좀 뭔가 특이한 데가 있거나, 또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거나, 어딘가 만만한 데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나는 어떤 유별난 데도 없거나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도 않아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풍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내 성격은 좀 간간했다. 다만 학생 때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 별명이 '간다'였다. 작달막한 키에 강마르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외모가 간디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성격이 워낙 간간해서 그렇게 불린 것이다. 사실 난 예전엔 정말 정확하게 풀림없이, 그렇게 촘촘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긍지도 갖고 있었다. 그러던 내가 나의 그릇된 마음의 틀을 깨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서부터였다. 말하자면 난 늦게 철이 들게 되었고, 이 사회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 '죄'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다. '죄' - 과연 무엇이 죄일까? 민법, 형법, 소위 '사회'라고 하는 틀이 만든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살'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종교인일수록, 스스로 죄 없이 떳떳이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탓만 하고,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살'의 자세일까?

역시 오래 전 일이었다. 그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여자였다. 혼기를 훨씬 지나서까지 열심히 일하며 한때 잘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신랑감을 데려 왔는데, 참하게 생기긴 했지만 남자가 좀, 나 처럼의 얌전하기만 했지 적극성이 없어 보였다. 이 사회에선 착한 사람이 처자 먹여 살리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좀 걱정스러웠으나,

내가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어서 속한만 해주었다.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파죽음쇠이 돼 인사를 온 그들을 보고 난 방정맞은 생각이 자꾸 들어 내심 어쩔 줄 몰랐다.

그러던 그가 정말 불행해지고 말았다. 신랑과 그동안 번 돈을 몽땅 털어 멋진 의상점을 냈는데, 그 가게를 돈 많은 건물주에 빼앗기고 몇 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생각했던 대로만 무능한 신랑은 속수무책이고, 신부는 천지사방으로 돈을 구하려 다녔으나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춘천에서 큰 회사를 하여 부자로 사는 그의 오빠는, 인생은 고생을 하며 저 스스로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개종철학을 늘어놓으며 한 푼도 도와주지를 않았다. 결국 그들은 뒷목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집에서도 쫓겨나 먼 시골 외딴 곳에 몇 푼 안 되는 사글세 방 하나를 가까스로 얻어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했다. 그는 나만 보면 소주잔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이를 보고 '죄 지은 자'라 손가락질하며, 그를 죄인이라 하며 고개를 돌릴 것이며, 그를 죄인이라 하여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매정한 '사회'의 법이란 잣대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는 결국 그 뒤 그 잣대에 의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그를 면회 갈 때 마다 그는 '아기' 걱정을 했지만 전처럼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내가 그의 손을 고옥 쥐고 내 눈물 몇 방울을 그의 손등에 떨어뜨려 놓고 오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깨달았다. 이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 간간한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기 보다는 '죄 지은 자'를 감싸주는 무량자비심이 이 사회를 지키고 기틀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들.

부석사는 내가 무척 좋아하는 절이다. 무량수전 배움림기둥 때문이 아니다. 극락세계에서 사바세계를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끌어오르는 무량자비심으로 세상에 화신불로 몸을 드러내시는 무량광의 아미타불이 내 마음속에 꼭 차오르기 때문이다. 극락은 뭘까? 괴로움과 죄에 가득한 사바세계를 바다보다 더 큰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극락이 아닐까? 그것이 이 삶을 벗어나는 길 아닌가?

어떤 사람이 말한다.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아픔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지, 어떤 어른이 조용히 타이른다. 아니, 부주이안(不住二)일세. 전생(사진작가)

남의 죄 용서 못하고
탓하고 버리는 게
올바른 삶의 자세일까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부처님 가르침 대중속에 심다

캠페인 결산

우리글 대장경 시주 바람 전산화로 세계포교 추진

본지(本紙)가 동국역경원과 공동으로 전개한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연중 캠페인은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였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한 이 캠페인은 본지 지역과 불교텔레비전 광고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37년간의 대장불사이자 불자들의 숙원이었던 한글대장경 완간을 계기로 한글대장경을 보급하고 대장경 읽기신행을 확산 시키는데 이번 캠페인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장경 봉안불사 바람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하는 '대장경 봉안 불사' 행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은 이 캠페인의 괄목할 성과. 안성도피안사, 군산 관음사, 대구 용화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신도 한 명 한 명이 참여하는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가 마무리 되었고 10여 곳의 다른 사찰에서도 현재 대장경 불사를 진행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한글대장경 이해넓혀

본지 24면에 마련된 캠페인 코너를 통해 한글대장경 가운데 주요 경전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 기사를 제공, 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동국역경원이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역경봉사 회향 대법회를 계기로 한글대장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장경이 으뜸 시주

평소 존경하던 스님에게 한글대장경을 시주하는 불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글대장경을 시주하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지만 몇 명의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한글대장경을 스님에게 시주하고자 캠페인에 동참하는 예가 늘고 있다. 양평 명복사의 경우 해제 월에 이 절에 와서 공부할 하는 스님을 위해 10여명의 불자들이 최비제로 비용을 마련해 한글대장경을 시주했다.

전산화로 열기 이어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의 완간에 이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다. 대장경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어디서나 한글대장경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현실화 되는 것. 본지와 역경원은 전산화 작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이 캠페인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연대 기자

한글대장경 모시는 사찰·가정 늘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룩한 대장불사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법보 한글대장경을 봉안 하는 사찰도 늘고 있으며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찰이 '불자 1권 봉안불사'를 추진해 한글대장경을 모셨



"전화 한통화면 봉안불사 O·K"

으며 현재도 이 불사는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1불자 1권 봉안불사
- ◆대장경 법보시안내
- ◆회주 권선 안내
-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가입으로 한글대

장경 봉안신도님들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에 가입하시면 한글대장경은 물론 장경각각지 돈 안들고 봉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장경각 보급 불사안내 문의
전화 737-8881, 722-4162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시공인연등용 ▶ 전선 케이블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의 종류별로 영기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불 안해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인월등)

팔모주름등

팔모조림등

옥곽등

공탄등



신제품 등등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풍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없애고 천국으로 인도 하는 시공인연등은 초파일 전에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알맞게 장식할 수 있는 신제품 등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일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출원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031)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

중등 보관상태